

위령 성월

서울대학교청 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학습목표

1.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2. 위령 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운다.

준비물

『가톨릭 기도서』(또는 기도문 자료), 전지, 필기도구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바라 보기 (15 분)

1. 내가 알고 있는 기도문 중, 죽은 이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기도문이 있나요?

~!

죽은 이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적어 봅시다.

- ① 『가톨릭 기도서』 또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포함된 자료를 나누어 갖는다.
 - ② 제한된 시간 안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된 기도문과 그 내용을 찾아본다.
- 예) 기도문 : 식사 후 기도 / 내용: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③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전지에 오려 붙인다.(기도서인 경우에는 옮겨 적는다.)
 - ④ 기도문을 가장 많이 찾아 붙인 조(또는 개인)에게 점수나 선물을 준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문 중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는 기도문을 찾았나요? ‘위령성월’ 기도문이나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등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 시간에 드리는 ‘사도신경’ 과 매 식사 후에 드리는 ‘식사 후 기도’ 도 죽은 이들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기도서』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묵주기도 한 단을 마친 뒤 드리는 ‘구원송’ 에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가톨릭 기도 문 중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교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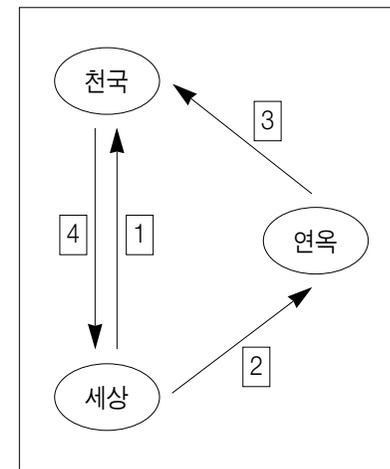
바라보기 질문에서의 기도문 찾기는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외웠던 기도문 중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알아보기에 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의미와 위령 성월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아 보기 (15 분)

- 1.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위령 성월은 어떤 달인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주위 사람들의 슬픈 일에 함께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습니다. 특히 주변에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은 이에 대한 예를 갖추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맞이하는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도신경’ 기도문 중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인(聖人)의 통공(通功)이란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들(모든 성인),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며, 세상·천국·연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죽은 이를 위한 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연대성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성인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 2 다음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이라 하여 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 3 우리의 기도로 연옥 영혼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 4 천국의 영혼들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연옥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다 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영혼에는 잠벌*이 남게 되는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전에 이 보속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보속을 치러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보속이 이루어지는 곳을 연옥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연옥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자선, 미사 봉헌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연옥에 관한 교리는 1336년 교황 베네딕도 12세에 의해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잠벌(暫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 당하는 벌. 지옥에서 당하는 벌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현세나 연옥에서 받는 벌은 유한하며 지옥의 영원한 벌에 비기면 ‘잠시의’ 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잠벌이라 한다.

† 가르침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뉘까지 갓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마태 5. 26).

연옥은 하느님과 만남을 위해 정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바로 이 순간에는 영혼들이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위령 성월은 이렇듯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로,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여 위령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11월 2일 ‘위령의 날’ 과 관련하여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는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1월은 낙엽이 지는 가을이며,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며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미사 중에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위령 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에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때입니다.

대사(大赦)란?

죄에 른 잠벌을 현세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덕의 일부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사에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모두 없애 주는 전대사와, 그 벌의 일부를 없애주는 부분 대사가 있다.

살아가기 (10분)

위령 성월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행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식사 후 기도 외우기, 식사 후 기도 잊지 않고 하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기 등.

위령 성월은 하느님과 인간의 유대 관계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때입니다. 또한 현세와 내세,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나 혼자만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와 희생을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령 성월 기간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연속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도

주여 임하소서(가톨릭 성가 151번)

교안 작성자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종교등부 교육부
교리교사 경력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재미있고 효율적인 교리 교수법을 제시하기 위해 교안을 작성하고 그 교안으로 서울대학교 종교등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례교육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